

가보농산, 일본에 ‘프로폴리스 치약’ 첫 수출

국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日회사와 ‘프로폴리스 치약’ 수출 계약
연 10만개이상 수출 계약

전남의 한 벌꿀제조 가공업체가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치약을 일본에 수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나주시 토계동에 위치한 가보농산(주)은 2월17일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된 '덴티폴리스 치약'을 연간 10만개(35만 달러 어치)이상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오타니사(社)와 맺었다"고 밝혔다. 가보농산 측은 한국 무역협회 무역현장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이번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우리나라에서 프로폴리스 기능성 치약을 일본에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가보농산 측은 치약 외에 프로폴리스 성분인 액상과 캡슐 형태의 또 다른 2가지 제품도 수출하기로 하고 시제품을 오타니사에 전달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 보수를 하거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여왕벌의 산란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바르는 항균, 항산화 물질로, 최근 들어 이 물질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약품이 국내

외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가보농산이 프로폴리스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김희성(59)대표가 40여 년간 고향 나주

에서 양봉을 하면서 관련 사업을 해온 경험에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양봉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벌꿀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지난 1995년 목포대와 산학체제를 구축해 프로폴리스 제품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이후 10여 년간 여러 국가기관 및 대학 등과 함께 꾸준한 공동 연구를 편 끝에 지난해 기능성 치약을 비롯해 아토피 로션, 샴푸, 비누 등 7종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인증한 공장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식약품 제조기준)시스템에서 생산, 상품 신뢰도를 검증받았다.

그는 "양봉을 포함한 모든 농업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며 "프로폴리스 제품 개발과 수출을 통해 어려운 지역 양봉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프로폴리스 허용갑 대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서울프로폴리스
허용갑 대표

서울 프로 폴리스는 29일 허용갑 대표이사가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9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허 대표는 2007년 한

해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해 온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건강기능식품공전개정작업반 분과위원장 등 활동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여년간 식품업계에 종사하며 다양한 연구활동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과학화와 세계화에도 힘써왔다. 한편 서울프로폴리스는 지난 2003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신기술평가기업으로 시작, 국내 최초로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공법'을 개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완료했다. 프로폴리스는 벌집에 있는 성분으로 항균, 항생, 항산화 작용이 있다. 최근 고부가가치 양봉부산물로 대두되면서 각종 건강식품이나 가축이나 양어장 항생제 대체 물질 등에 쓰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수용성 프로폴리스 추출기술은 항균,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 천연 항생제로 각광받았지만 수용화가 어려워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영역에 쓰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